

2019. 9. 15. **연중제24주일**



“나는 솔직히 죽는 것을 몹시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죽는 것보다 몇 천배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성 손자성 토마스)

교구가톨릭사전회

제1독서 탈출 32,7-11,13-14

제2독서 1티모 1,12-17

복음 루카 15,1-32<또는 15,1-10>

화답송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복음환호송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마음 청소

죄에 얼룩져진 상태라면 죄 앞에 무너지기 쉽다.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할까? 누군가는 낮에 회먹고 저녁에 개먹으면 회개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누구나 이해하는 회개란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의미이다. 가톨릭에서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들 중 회개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물은 누가 뭐래도 고해성사가 있다.

신부생활이 오래지 않지만 고해실에 있다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구분이 되어진다. 대체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죄 고백이 구체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매우 뭉뚱그리는 표현이 많다. 그래서 문득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죄를 꽤 많이 지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은 마치 의인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 매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분들일수록 참회의 마음이 더욱 샘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신학생 때 어느 교수 신부님께서 해주셨던 월 피정 강의가 떠오른다. 항상 마음의 청소를 잘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지저분한 방에 하나 둘 더 지저분해져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깨끗이 청소된 방에는 어지럽혀지고 지저분한 부분이 보이면 바로 알 수 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화해하여 깨끗해진 내 마음에서는 성찰이 잘 이루어진다. 하지만 죄

에 얼룩져진 상태라면 죄 앞에 무너지기 쉽다는 거다.

오늘 복음을 보면 주님께서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시는 분이시길 잘 알 수 있다. 곧 회개하는 죄인을 향해 항상 찾아 나서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항상 찾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는커녕 말로는 함께한다고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멀리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정말 회개의 길에서 그리고 주님께 점점 멀어질 뿐이다.

언제나 우리의 회개를 바라시며 두 팔 벌려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주님께 매 순간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란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은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최철 요한보스코 신부
군정성요한 성당



한국에 첫발을 내딛다²⁾

1934년 5월
제럴드 매리난 Gerard Marinan 신부

자동차와 열차로... 안개를 헤쳐 가갸스로...
따뜻한 환대와 새로이 익혀야 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한국에 도착하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던 그 시각, 긴 여정을 달려 극동에 도착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부산역을 빠져나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우리가 탄 기차가 속도를 내어 생기 넘치고 분주한 모습의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주변 지역의 을씨년스러운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났다. 지난 밤 그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당일 아침 새벽까지도 여전히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한 두 시간 지나도 여명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끝없이 펼쳐진 행하고 질척거리는 들판의 정경들은 순식간에 애잔한 적막감을 돌게 했다.

첫인상

초가지붕을 얹은 흙집들이 마치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려는 것 마냥 언덕 주변 아니면 물에 잠긴 논 가까이에 위태롭게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초라한 뒷골목들이 작은 마을을 향해 구불구불 나 있어서, 심해져가는 폭우 속에 자신의 하얀 옷을 티끌만큼도 더럽히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부질없게 되었다. 그날은 주일이었지만 한국인들은 가능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편이어서 간간히 보이는 작고 단아한 성당이 없었더라면, 이교情景인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단조로운 풍경이 피곤한 몸에 수면제로 작용하여 나는 “그래, 여기가 한국이구나.” 중얼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낮잠 그리고 추억들 I



대구에 파견되어 온 최초의 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10명의 선교사들과 드망즈 주교(대구, 1933. 10. 29)

제럴드 매리난 신부,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기차에서는 결코 숙면을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한국의 열차는 자국 내 가장 현대적인 것으로 손꼽힌다) 편치 않은 휴식을 잠깐 취한 후 지나쳐가는 시골 풍경에 다시 흥미를 가지고 보기 시작했다. 폭우가 그치자 안개가 열려져 더욱 선명히 드러난 산들이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매력을 뽐내기 시작하였다. 산들은 마치 몇몇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찾아오라고 초대하는 듯했다. 산들은 친숙하게 다가왔는데 그도 그럴 것이, 청명함을 띠고 있어 마치 고향처럼 느껴지는 매력이 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모든 정경이 고향을 떠올리게 해서 내 생각은 바로 몇 주일 전 떠들썩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기 전으로 되돌아갔다. 한국의 모습은 더 이상 내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었고, 나는 주변 경관에 무심해졌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교회사연구소에서는 영문사료 번역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교회사연구소(062-380-2230)로 연락주세요.

1) 「The Far East」는 대한민국에 왔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이 본국(아일랜드)에 돌아가 자신들의 사목활동의 성과와 삶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글로 썼고, 이를 실은 잡지다.

2) “First Steps in Korea”(1934 5월, p.3-5.

우리 가족의 경계선

허 찬 베드로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교

한 부부는 부모와 분가해 살고 있었지만, 양가 부모들은 혼인한 자녀 부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며 말도 없이 집에 불쑥 찾아가기도 하면서 갈등은 촉발되었습니다. 부모가 이 부부에게 일어난 일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 마냥 두 팔 걷고 해결하려고 나섰고, 부부는 그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 보니 아내는 시댁을 상대하게 되었고, 남편은 처가를 상대하는 모습이 되어 버렸지요. 부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합의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든 이러한 합의를 지켜 나아가야겠다는 존중의 마음이 서로 있어야 하는데, 이 합의가 깨지면서 혼인 전의 과도한 효자, 효녀의 모습으로 자신의 부모와 융합되다 보니 부부 관계는 위기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혼인한 자녀들과 자신의 부모인 원가족과 관계 설정을 서로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 일들입니다.

가족 안에도 서로의 경계선 *boundary*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경계선을 가진 가족은 ‘너의 것은 모두 나의 것이며, 너의 일은 다 나의 일이다’라는 식으로 밀착되어 접근하기에 경계선을 허물며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독립과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가족의 소속감과 친밀감만을 강조하며 다가서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얽히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지나치게 관여하게 되어 결국 스트레스로 갈등만 증폭되지요. 반대로 너무 경직된 경계선을 갖게 되면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라며 지나친 독립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 가족 구성원은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정작 도움을 주고받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서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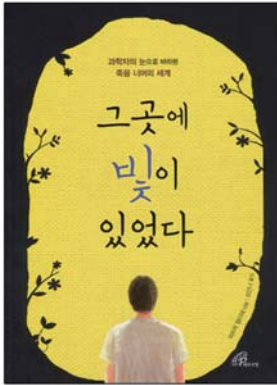
리된 가족이 됩니다. 이러한 경계선이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고 분명해야 하는데, 너무 경직되거나 또는 모호하면서도 불분명한 경계선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가정은 위기의 낭떠러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선을 갖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아이이지만, 내 부모이지만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 감정을 존중하다 보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알게 됩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경계선과 거리를 유지하여 서로 협동하고 지지하며 서로의 삶에 대해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의 경계선, 어떠했나요?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1코린 13,4)

죽음 이후의 무엇 「그곳에 빛이 있었다」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언제 여름이었던가 싶습니다. 머지않아 죽음을 단풍에 비유할 계절이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죽음’을 생의 마지막, 삶의 끝, 이별, 낙엽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죽음이란 단어 그 기저에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이겠지요. 죽음은 정말 삶의 끝일까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존재하긴 할까요? 죽음 너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모두에겐 의문과 호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인간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루르드 의료 검증국에서 십 년 동안 상주 의사로 일한 저자 피에르 세리티앙주의 저서 「그곳에 빛이 있었다」입니다. 이 책은 자신이 만난 환자들이 겪은 병리학 적 한계와 그것을 뛰어넘은 초자연적 현상, 곧 임사 체험을 과학과

가톨릭 신앙의 관계 안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한 정통한 과학자로서 과학과 종교, 이성과 신앙을 잘 아우르는 조화를 느끼도록 해줍니다. 또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전체 내용은 첫째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둘째 ‘천국은 정말 있다’, 셋째 ‘천국은 존재한다’, 넷째 ‘집행유예 된 삶’, 다섯째 ‘나는 지옥에 갔었다’, 여섯째 ‘총에 맞고서’, 일곱째 ‘지옥과 연옥, 천국을 본 사제’ 등 일곱 개의 증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유 기적, 마리아 발현, 또는 몇몇 신비가에게서 드러난 발현 같은 놀라운 현상과 임사체험 사이에서 찾아낸 수많은 유사점을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실어 모든 내용을 긍정하게 하는 점이 돋보입니다.

또한 임사 체험 사례와 기가 막힐 정도로 상응하는 성경 구절들은 물론, 임사 체험이란 주제를 밝혀주는 다양한 성찰과 여기에 수록된 임사 체험의 증언들은 너무나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고 극적 긴장감마저 듭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나서는 현대인들이 던지는 물음표 앞에서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 뜨게 하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의 사랑체험에 다가서게 하는 멋진 책입니다. 저자 피에르 세리티앙주는 다음과 같은 말로 죽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쪽에서 보면 죽음은 어두운 그늘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눈부신 입구다.”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성바로로 딸 수도회)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이동식커피차 Cafe Caritas 자원봉사자 모집(초보가능)

봉사시간 : 주 1회 평일(12:00~15:00) 또는 주말(행사 시)
봉사장소 : 평생교육원
봉사내용 : 음료 제조 및 판매
※ 수익금은 미혼모자 생활지원비로 전달됩니다.
문의 : 062) 510-2893

제8회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순례

일시 : 9.28(토) 09:30~16:00
집결장소 : 담양 추성경기장(관방제림 옆)
순례코스 : 담양 → 천주교공원묘원(1km)
참가비 : 5천 원, 중식(도시락)은 개별준비
준비물 : 미사 준비, 목주, 음료수, 개인용 돗자리, 우의(우천시)
신청/문의 : 9.20(금)까지 평신도사도직협의회 062) 236-3004
*담양천주교공원묘원에는 6.25 때 순교한 전기수 그레고리오와 고광규 베드로 신학생의 묘소가 있어 더욱 의미가 있는 순례가 될 것입니다.



교구장 대주교님 동정

9월 21일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서품 미사



총대리 주교님 동정

9월 22일 건진 · 사목방문(별교)

라틴어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

일시 : 9.21(토) 10:30
장소 : 북동 성당
집전 : 정경륜 신부
문의 : 062) 380-2210~5

사목국

제2회 새로나는 성경공부 학생연수

일시 : 9.26(목) 09:30
장소 : 평생교육원 성당
주제 :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대상 : 모든 신자(신청금 1만 원)
신청 : 9.19(목)까지, 본당 사무실
문의 : 사목국 성서사도직 062) 380-2260
2019 가을학기교구 성경공부 여수지역 안내
개강일시 : 9.27(금) 13:30~16:00
장소 : 여수 선원동 성당 교육관
교재 : 새로나는 성경공부
「마르코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강사 : 윤일마 수녀(성비오로말 수도회)
신청금 : 여수시내본당 8만 원 / 여수시외본당 5만 원
교구지원본당 3만 원
접수문의 : 9.23(월)까지, 성서사도직 062) 380-2260

카나혼인강좌

일시 : 9.29(주일) 12:30 / 장소 : 평생교육원 103호
수강료 : 2인 3만 원(농협 601135-55-000431)
신청 : 광주대교구 홈페이지 → 참여마당
문의 : 062) 380-2834

선택 월미사

일시 : 9.26(목) 20:00 / 장소 : 평생교육원 경당
대상 : 선택주말을 수료한 모든 분
문의 : 010-9030-3908

제62차 선택주말

기간 : 10.11(금) 19:00~13(주일) 17:00
장소 : 평생교육원 3층
대상 : 미혼 남녀 30명(만 38세 이전, 접수순)
참가비 : 광주시내 10만 원, 광주시외 8만 원
신청 : 10.1(화)까지, 본당 사무실(그룹웨어)
계좌 : 601135-55-000431 광주구천주교회
문의 : 062) 380-2834

청소년국

예비신학생 월모임

일시 : 9.22(주일) 13:30 / 장소 : 평생교육원
대상 : 중1~고2 사제성소자
문의 : 062) 380-2280~1

지원반 등록 및 월모임(2020년 첫모임)

일시 : 9.29(주일) 10:00
장소 : 평생교육원 경당
대상 : 고2, 청년 사제성소자, 기존 지원반
준비물(기초지원반제외) : 주임신부님 추천서,
증명사진 2부, 교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일미사준비(매일미사 책)
문의 : 062) 380-2280~1

청소년사목국

청년성서 대표봉사자 모임

일시 : 9.21(토) 14:30
장소 : 광주가톨릭 청소년센터
문의 : 062) 380-2275

청년성서 그룹봉사자 재교육

일시 : 9.21(토), 28(토) 14:30
장소 : 광주가톨릭 청소년센터
문의 : 062) 380-2275

오디오기가 버스킹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여 꿈을 키울 수 있는 무대를 만듭니다.
일시 : 9.28(토) 19:00
장소 : 호남동 성당
문의 : 062) 380-2279

인권 평화재단

치유의 인문학

일시 : 9.25(수) 19:00
장소 :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주제 : 자유로운 삶
강사 : 이현주(동화작가, 시인)
참가비 : 무료
문의 : 062) 601-1974, 062) 234-2737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com FM 99.9MHz FM 99.5MHz

f 페이스북 kjpbcc99.9mhz t 트위터 kjpbcc

오늘의 강론 [월-토(본방송) 06:50-07:00] [월-금(재방송) 16:50-17:00]

9.16(월)~18(수) 장옥중 신부(함평군 청소년문화의집) / 9.19(목)~21(토) 최윤복 신부(영산포본당)



한국인 첫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창작 무용극 안내

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순교자현양회는 9월 순교자성
월을 맞아 한국의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의 신앙과 순교정신을
기리기 위해 창작 무용극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공연 일시 : 9.18(수), 19(목) 19:30(1시간 소요)
공연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광주 남구 구동)
공연 문의 : 평신도사도직협의회 062) 236-3004 / 티켓 : 전석 2만 원

'오후2사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선교 프로그램)', '오후5시-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들으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005(100원 유료)로 청취소감 등을 보내주시면 문자 소개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택으로 보내드립니다. 교구민과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St. 바오로 여행사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문의 : 062) 381-9004

이스라엘, 로마(11일) 10.1(화)~11(금) / 이스라엘(9일) 11.1(화)~27(수)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e.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가톨릭갤러리 현 책다하기사랑 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T. 062) 380-2210~5

2019년 2학기 수강생 추가모집

[교리신학원-신학] 사회교리 [교리신학원-성서] 요한계시록 / 예언서
※[사회교리] 강사 : 심한주 교수(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프랑크푸르트 가톨릭 신학과-사회윤리 전공)
[신학과 영성] 수도자아카데미 / 생태영성학교
[김민수 신부와 함께하는 구약성서여행] "미카서"
구약의 <12소예언서>의 여섯 번째 예언서 : 거대한 사회비판과 야훼의 심판, 새로운 구원시대에 대한 예고
[이영현 신부의 화요신약성경] "마르코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의 텍스트와 메시지 : 200주년 기념 성서와 새 번역 성경의 비교 분석
[자격] 웃음지도사 / 레크리에이션지도사 / 우리춤체조(초급)
[교회음악원] 성음악사 / 음악기초이론 [철학] 철학고전읽기(신기관-F.베이컨)
[음악] 가야금(야간) / 민요 / 판소리교본 / 클래식기타(주말) / 통기타(초급) / 색소폰 / 오카리나(초급)
바이올린 / 클라리넷 / 플루트(주말) [무용] 전통무
[교양] 힐링무비&힐링토크 / 해설이있는클래식음악감상 / 가톨릭공예(양초 · 조각초 · 매듭목주)
• 인터넷 www.kccee.com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및 온라인 결제 가능 • 문의 : 062) 380-2210~5
• 교육입금계좌 : 광주은행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기관 · 단체

파티마성모님요청지향 구구썸묵주기도

일시 : 매주 월요일 09:30~11:00
장소 : 평생교육원 3층 경당
지향 : 세계평화, 죄인들의 회개,
남북평화통일, 가정성화
문의 : 파티마세계사도직 010-6490-8475

동심회 9월 미사

일시 : 9.16(월) 14:30
장소 : 평생교육원 3층 경당
문의 : 010-2776-0035

광주나자렛집 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 9.18(수) 15:00 / 장소 : 광주나자렛집
문의 : 062) 954-3009, 010-2767-3009

북 콘서트 - 김일두 신부의 내가 사랑한 책

일시 : 9.18(수) 19:00
장소 : 바오로딸 서원
문의 : 062) 528-1004

서울 삼상산 2박 3일 무료치유 대파정

기간 : 9.20(금) 18:00~22(주일) 15:00
강사 : 레나도루프 주교 한철호, 손동훈, 김현석 신부 등
출발 : 광천터미널 12:30, 문예회관후문 12:40
문의 : 010-2374-9416

소화자매원 후원회 월례미사,

조비오 몬시뇰 기일미사

일시 : 9.21(토) 10:30
장소 : 담양 천주공공원로원 부활의집
(담양군 월산면 광암리 산 57번지)
출발 : 소화자매원 09:00 또는 개인출발
문의 : 062) 675-4023

교구는 광주·전남지방종신센터와
함께 우리지역사회적 경제기업을 소개합니다.

맑고 밝고 따뜻한 협동조합
www.pureplan.co.kr

고흥농민들이 고품 특산물로 만든
HACCP인증 음료와 천연조미료
슬론on석류 110ml×10포 18,000원
클린 유자 500ml 16,500원
블루베리엑기스 500ml×2 50,000원
자염세트 350g×2종 20,000원
구입문의 ☎ 061) 834-3665 민정화
전남 고흥군 포두면 외산길13

정남진 우리 김부각영농조합

어른신들이 장흥 무산김과 표고버섯을
넣어 만든 건강한 간식

김부각(튀긴 것)
80g 5,000원 / 170g 10,000원
김부각(안튀긴 것) 200g 10,000원
3가지 맛(표고맛, 매운맛, 들깨맛)
구입문의 ☎ 061) 862-7715 정송임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54

젊은이 침묵피정(미혼 여성)

기간 : 9.28(토) 16:00~29(주일) 16:00
장소 : 남평 글라렛선교수도회
접수마감 : 9.26(목) 19:00
문의 : 010-3359-1958

스포츠미트(Sportsmeet)

일시 : 9.29(주일) 10:00~17:00(16:00 미사)
장소 : 광주가톨릭청소년센터
대상 :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신청기간 : 9.22(주일)까지, 접수순 150명
회비 : 5천 원(점심 및 간식 제공)
문의 : 062) 222-2800

병자들을 위한꽃동네 치유세미나

기간 : 10.19(토) 11:00~20(주일) 16:00
장소 : 꽃동네사랑의영성원
대상 : 육적, 내적, 영적으로 치유받고 싶은 모든 분들
비용 : 5만 원 / 문의 : 010-5490-5345

34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아캠프

출발 : 1.14(화) / 설명회 : 10.26(토) 14:00
국가 : 캐나다, 필리핀
대상 : 청소년, 대학생, 가족 연수
문의 : 광주청소년수련원 070) 4365-7297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성지순례

10.18(금) 미국서부-멕시코 13일, 548만 원
10.31(목) 이스라엘 9일, 375만 원
11.4(월)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 5일, 125만 원
11.11(월) 이탈리아 중·남부 10일, 405만 원
문의 : 02) 2266-1591, www.cpbctour.co.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기간 : 9.27(금)~29(주일), 10.3(목)~6(주일),
10.9(수)~11(금), 10.14(월)~17(목),
10.22(화)~25(금), 11.1(금)~3(주일)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 064) 796-9181

제주도 관광안내(제주운전기사사도회)

가족, 호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 064) 758-6476, 010-4566-6476

수도회

예수의 소화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 매월 셋째 주 토 10:00
(상당 후 변경가능)
장소 :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길 25 본원영성관
문의 : 062) 673-9633~4, 010-4415-4022

순교자성월 2박 3일 무료대피정

기간 : 9.20(금) 22:00~22(주일) 15:00
장소 : 성심교육관
문의 : 031) 262-7600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 9.21(토) 14:00
장소 :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 010-3800-1579

살레시오회 광주 성소모임

기간 : 9.28(토)~29(주일)
장소 : 살레시오 수도원신안동 자미로 42)
문의 : 010-5159-3949

예수고난회 다네이영성학교

일시 : 9.16(월) 19:30 / 주제 : 시대정신의 실천지 광주
지도 : 노성태(국제고 수석교사)
문의 : 일곡동 명상의 집 062) 571-5004

예수고난회 은인모임(접수순)

기간 : 10.2(수) 17:00~3(목) 12:30
대상 : 예수고난회 후원자
문의 : 일곡동 명상의 집 062) 571-5004

예수고난회 청소년지도강사 양성교육

기간 : 10.12(토) 14:00~13(주일) 15:00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주제 : 놀자(놀면서 자기찾기) 과정
대상 : 교리교사, 청소년지도자, 교사
신청문의 : 062) 571-5004, 010-3465-5452

예수고난회 재속3회월 모임

일시 : 12.31(화)까지
대상 : 55세 이하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교우
문의 : 010-3609-2084

성삼의 딸들수녀회 성소안내

일시 : 항시 문의 바랍니다.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 061) 382-2214, 010-4853-2114

본당

치평동 성당사무원 채용공고

자격 : 세례 3년 이상, 컴퓨터 운영 가능한 분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신부 추천서
교적 및 자격증사본
접수 : 사무실 서류 접수 후 개별면접
문의 : 062) 383-2004

청소년문화카페 꿈cum 토탈공예

장소 : 청소년문화카페 꿈cum(광주교대 옆)
문의 : 062) 380-2279
*소품 DIY(가족카드지갑)
일시 : 9.21(토) 14:00
대상 : 청소년, 접수순 10명(무료), 9.17(화)까지
*곰지락곰지락(코비해 뜨기)
일시 : 매주 화요일 18:00
강사 : 김민선 수녀(살레시오 수녀회)
대상 : 청소년 및 청년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 진행요원 모집

행사기간 : 10.25(금) 15:00~27(주일) 17:00
업무내용 : 행사 진행 / 대상 : 청년, 대학생
지원서류 : 재단 홈페이지 공고 참조
접수 : E-mail 접수, kjip@hanmail.net
기한 : 9.25(수)까지
문의 : 광주인권평화재단 062) 234-2737
※ 진행요원교육 필참/소정의 교통비 지급

**지리산피아골 김연준 신부와
함께하는 가톨릭 교리강좌**

일정 : 10.3(목) 16:00~6(주일) 13:00(3박 4일)
(어려운 교리를 쉽게 풀어드려요/고해성사 가능)
문의/접수 : 061) 782-5004, 010-6516-5006